

고 회 목 표

심할만 예배
전국일문 앞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말라기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6월 28일 금요일

6.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인 이해

여호와와 주권에 관한 선지자의 재확인 / 아모스, 호세아, 렘 1-29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십일조와 번제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지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렘 7:25~26). 이것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선지자들이 외치는 주권 경고였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왔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좌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적인 자들이 되어버렸다(렘 9:8).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것은 또 다시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상실한 채 자신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혹독함을 면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참 일리성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몰락시키고 비아하일같이 철저히 배척하였다. 그래도 선지자들은 이러한 망명을 끝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께 만전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신약에도 나타난다.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을 좇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전했고 그분을 찬양했다. "주 예수를 믿노라. 그러하면 나와 네 같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3). 그는 또 사람들에게서 인가 없이 없고 명예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예배에 대한 회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왜곡되었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경고했다(사 40:6). 그렇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며(사 40:7), 상한 심령과 회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사 51:16~17). 예배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일이며(렘 10:12,16),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함으로써 내적 순종을 외적 표현으로 알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모든 행위는 죄의 기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언약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만이 필요한 뿐이다.

이스라엘의 상실된 믿음에 대한 각성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고 책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과거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소위했다(렘 11:3~4).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언했으며(사 13:4~5),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서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경고했다(렘 16:15,16,22,60). 선지자들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열매임을 알았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하시다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은 신속히 돌아오라고 외쳤다(렘 11:4, 사 1:2, 렘 31:9, 31:20). 그래서 '이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각성시키려 하였으며(사 7:9, 30:15), 아모스 선지자도 과거의 경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려했다(아모스 1:1). 진실로 이스라엘은 이새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세상이나 나라 세상의 어느 왕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은 망명애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사 7:4,9, 30:15~31:1).

영적인 이스라엘이 결여야 하는 길

오직 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들뿐 1:7).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사 38:5). 그러나 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경이나 환경에 좌우되어서 완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해 세상을 무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고 가혹히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렘 22:3,7)? 선지자들의 회개에 대한 촉구, 왜곡된 예배에 대한 각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는 대한 경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버려버려나 돌아서라는 것이다. 모든 죄를 반회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좇으라 하고 부름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욕에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라! 내적인 순복, 나로 부름하는 것을 반회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완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라! 만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버리면되나. 구원도 그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라! 구원은 언제나 십자가가 뒤에 그려진 십자가의 또 다른 열매이기 때문이다.

2002년도 제4차 성찬식, 맥추감사주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밭 다스려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덜어나 되겠습나이다"(요 6:9).

한 아이의 보리밭이 들에서 굶주린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었다. 안드레의 이따대로 그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주께서 드리신 감사의 기도는 놀랍게도 오 천명을 먹이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사자의 모든 소유를 바친 한 아이처럼, 오직 한 분인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생의 복음이 되었다. 진실로 감사하리이다! 그러므로 성찬주일에서 동시에 '맥추감사주일'로 보내는 이번 주일에 진정한 감사! 향기로 넘쳐나 되어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자.

지나 수요일에 메시지

믿는 자의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저런'

'너희 몸',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바꾸신 몸이다. '너희 몸'은 신자들의 영원한 몸으로서 세상의 아름다움 자들을 잃기 위해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 몸'은 각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로되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이 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가치가 부어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 가서는 성령의 전이요 지성신앙을 얻어온 한대신 3:16, 례 258, 요 22:4, 4:13, 인 19:20, 례 15:31, 마 21:15).

'너희는 알지 못하느나'

믿는 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에 창조하시고 성전인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사 51:10). 성령을 받은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것이다(골 3:6). 또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골 5:22~2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인도를 위하여 자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골 1:14).

'우리의 몸을 강조한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하여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께서는 신자는 자신의 몸을 의식(의식, hypocrisyl)에 내어주시고, 성령과 예수 안에서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열쇠와 되고 감조하며(렘 22:2), 하나님의 선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듯이 신자의 몸을 세상에 일치시키지 말 것을 강조한다(고후 6:6). 그러므로 믿는 자의 몸은 주의 계신 십자가 주 의 영성이 거하는 곳임을 인식하여 죄가 있는 곳에 내어주시고 기도하시라(26:8~9).

'우리는 받는 자들이다'

성령의 선전, 믿는 자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께로 부터 새롭게 지을 받은 창조물의 몸이다. 우리는 이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없이도 되어진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임하신것으로 2:10, 아들을 사함으로(요 1:4), 그리고 교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은 몸이다(골 6:17~18).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몸을 받는 자들이다.

'발견하는 자가 되자'

영광의 몸을 발견하는 자, 주께서 피 흘리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사로 사용되기에 할 몸임을 발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한 권세에서 간제하여 그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자신과 화복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자이다(골 1:13,20).

신비적 연합의 특성들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들 사이의 특징으로는 먼저 신비적인 연합을 말할 수 있다. 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그 속에 내주하게 되는 생명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이 생명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자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골 4:10). 세 번째의 특징은 성령에 의해 조화된 연합이다. 생명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기 위해 오순절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통해 지금 신자들 안에 계시며, 그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하신다. 또한 그들을 거룩한 연합으로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다(고전 6:17, 12:13). 네 번째의 특징은 성령에서 신자들을 항상자서 인도를 얻음으로써 신자들과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성령적인 동행을 포함하는 연합이다. 즉 이는 한 편에서 강하게 아닌 생령의 강화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의 특징은 각 신자가 개인적으로와 직접 연합하는 관계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생령으로 충성된 신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므로 직접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적 연합의 특성은 변형적 연합이다. 이 연합에 의해 신자들은 "인생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며 또 막히고 죽는 새 생령의 일임함을 받는다. 즉 비록 신자들이 완전한 주님에 대한 경멸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불완전으로 주님에 대한 경멸을 신비적 연합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때와 때로 15:50 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생명을 할 때 이 이러한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성 례(목사, 소년부 지도)

Change Yourself? (Jeremiah 13:22-23)

*"If you say in your heart, 'Why have these things happened to me?'
Because of the magnitude of your iniquity your skirts have been removed
and your heels have been exposed. ; j"*

Jeremiah pleaded with Judah, "Listen and give heed, do not be haughty, for the Lord has spoken" (v. 15). But they didn't listen, "But if you will not listen to it, my soul will sob in secret for such pride; and my eyes will bitterly weep and flow down with tears, because the flock of the Lord has been taken captive" (v. 17). Judah's pride and arrogance got in the way. My dear friends, the stubbornness of your heart will always draw you away from God. The Lord forewarned Judah that punishment (the Babylonian captivity) would be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her continuance in sin (vv. 20-22). She would be humiliated, "your skirts have been removed and your heels have been exposed", by her prideful behavior. In God's great wisdom He asks prideful people, "Can the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his spots?" (v. 23). Every human has to answer "no" to this question. With this answer in mind, God said, "Then you also can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v. 23). The point is that if you can't change your outward nature, you surely can't change your inward nature. Jeremiah knew this, and he wanted Judah to know too. He had wept over them, and they would not listen. Even God's judgments had failed to move them, so 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y were beyond help, and could no more improve than a black man could become white.

Let's look at the question: "Can the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his spots?" If you ask any person this question, without even thinking, their immediate reply is "No". The outward impossibility of Ethiopians and leopards changing their own skin color is obvious. Just as plain, is the inward impossibility of people "accustomed to doing evil" changing their own character and heart. Can a person, will a person, change himself? No way! The difficulty in the sinner's case is that humans cannot change their own nature. The Ethiopian or leopard can have their skin washed or painted, but they cannot change that which is part of themselves. Such is the inward nature of man. In fact, the human will is itself diseased by sin. Man cannot do good, for he has no mind to it, no wish that way. In man's will lies the essence of the difficulty; he cannot do what he does not will to have done. He is morally unable.

Let's look more closely at God's response to His question; "Then you also can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Sinners cannot change their nature, for all humans are born into sin. Over time, their practice in transgression forges chains, and binds them to evil. The strength of habit becomes second nature. The pleasures of sin fascinate and enslave the mind. The appetite for sin gathers intensity from indulgence in things like drunkenness, covetousness, lying, and adultery which become a growing force. Their

understanding is blinded and prevents them from seeing the evil of their ways. Their conscience is drugged into a deep sleep, out of which they cannot wake-up and see the truth. The answer that humans cannot change themselves is supported by many reasons. A sinner can no more renew himself than an Ethiopian or a leopard can change their skins.

So, why preach to sinners? It is Christ's command, and we are bound to obey. Their inability does not hinder our ministry, for God's power is in His word. Why tell them that it is their duty to repent? Because it's the truth. A sinner's moral inability is no excuse. The law is not to be lowered because man has grown too evil to keep it. Why even tell them of this moral inability? To drive them to self-despair and make them look to Christ. Are you not grateful that God's word was preached to you?

Here is another question and answer. Can an Ethiopian or leopard's skin be changed, or better said, can a sinner be made anew? The answer is yes! This is a very different affair and in it lies the door of hope for men. For surely the Lord can make a black man white. The greatest sinner can be transformed into a child of God. The grounds for so believing are many. Consider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With people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Mt. 19:26). The Holy Spirit has special power over the human heart. The Lord Jesus has determined to work this wonder, and for this purpose He came into this world, and died, and rose again.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1). The gospel was prepared with that end. It does more than change the skin; it affects the head, the heart, the understanding, the conscience, the motives, the desires, the hopes, the fears; and through these, the whole conduct. So, that those who were accustomed to do evil become expert in doing good. God has made His church long for such transformation, and prayer has been offered that they may be changed. Will not the Lord hear us?

Herein lies the hope for the most terrible sinners. Not in the bath of baptism, nor in the medicine of vows and pledges, but in His word of power, who does great wonders of grac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If you ask today's Scripture question to man, the answer is no. But if you ask this question to the Lord, with your faith, the answer is yes. That's why without faith you cannot receive God's glory or give God glory. Do you have faith? Do you hear God's question of whether an Ethiopian or a leopard can change their skin? Let us pray, "I cannot, but You can." ▮

*지난주 영어설교본문을 Matthew 26:24-29로 정정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

(렘 13:22~23)



김성완 목사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였으냐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나라...”

유다 백성의 완고함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찌아라, 귀를 기울일찌아라, 교만하지 말찌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15절)”.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고통할 것이며 여호와와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17절)”. 유다의 자존심과 자만심은 그러한 길을 걷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스런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그들이 계속적으로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심판(바벨론 포로)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20~22절). 유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나라”. 그 크신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23절).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23b). 이 말의 의미는 외적 본성(피부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내적인 본성(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로 이 사실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돌이키기란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구스인이 그 피부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스 사람과 표범이 그 피부색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격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가진 문제점은 바로 인간이 그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혹 구스 사람이나 표범이 자기 피부부를 씻어내든지 아니면 페인트로 칠해서 바꾸어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 자신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에 감염되어 있기에,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추구할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지 않은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합니다.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죄의 사슬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봅시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 죄인은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악행은 죄사슬을 만들어내고 그 죄의 사슬은 인간을 악에 묶어둡니다. 그러한 습관은 곧이 이 본질이 됩니다. 죄의 향락은 마음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듭니다. 죄의 욕심은 술취함, 탐욕스러움, 거짓말, 간음과 같은 갈수록 자라나는 세력의 탐닉에서 오는 강렬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들의 길에

놓여있는 악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결코 깨어나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대답은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구스인이나 표범이 자기 피부색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명령

그렇다면 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죄인의 무능력이 결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도덕적 무능력에 대한 핑계는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게 변하여 지킴이 힘들다고 해서 범을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러한 도덕적 무능력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한 능력

여기에 또 다른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나 표범의 피부가 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인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변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인간을 위한 소망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깊은 인간을 회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는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복음은 이러한 결과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복음은 피부색을 바꾸는 것 이상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이해와 양심과 동기와 욕망과 소망과 공포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깨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데 악한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갈구하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바쳐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여기 끔찍한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세레나 맹세와 서약의 처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던지고 있는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보신다면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한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혹은 표범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 합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어느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단기선교 참가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나는 단기선교에 참석하기로 하고 여러 나라 중에서 먼저 베트남을 택했다. 솔직히 베트남을 택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정과 선교전략상 의료전도팀 외에는 갈 수 없다고 하여 베트남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으로 택한 곳이 몽골이었다. 건축설계가 직업이다보니, 세계 각지에 있는 유명 건축물은 다 보아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그 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으나 '주님을 위해서' 다닌 여행은 한번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전도만을 위해 단기선교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다. 같은 동양권이고 얼굴 모습도 비슷한 몽골! 한 때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해서 우리를 괴팍했던 나라 몽골! 이번에는 그들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던 대원들이 한 팀이 되었다. 우선 아침 찬양 연습 전 20분간 몽골어 찬양을 연습하고 간단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보다 강도 높은 몽골어 연습 및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시간을 가졌다. 나는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몽골에서 씨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여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하는 열려가 들기도 했으나 우리 찬양대 젊은 자매들의 힘찬 몽골찬양소리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다. 주일 저녁 11명의 모든 단원이 모여 선교위원회의 최종 테스트를 받았을 때도 우리의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났으나 현지에서 가서 그것을 느끼기보다는 미리 이런 부족함을 느끼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제 다섯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가게 될 사역지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무려 18시간이나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린 몽골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여행이 되기를 기도한다.

2002년 마지막 CMTC 집중훈련(3차)

일정 : 17(월) 09:00~22:00

장소 : 배다니홀

대상 : 전교인

*아직까지 선교훈련을 받지 못한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4교구 루마니아 7월 10(수)~18(목)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부서	사역지	날짜
13교구	우즈베키스탄	7월 2(일)~13(일)(토)
가브리엘	몽 골	7월 2(일)~12(일)(금)
17교구	키자흐스탄	7월 2(일)~12(일)(금)
에바다부	키자흐스탄	7월 2(일)~ 9(일)(화)
아 멘	스리랑카	7월 2(일)~12(일)(금)
9교구	키자흐스탄	7월 2(일)~12(일)(금)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5(일)~17(일)(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

하나님께서서는 그 거룩한 사람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며, 영원한 화해(和解)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었던 말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할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 심각성에서는 죄를 설명하는 단어로 '하마르티아'(hamartia)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은 표적에서 빗나간 것, 혹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불', '사악하고 부패한 악', '내적인 부패', 그리고 '무법', '침입'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각각의 죄에 대한 단어들은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다.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어기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죄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를 거절하고 우리의 자존과 자율성을 선언하도록 만드는 시작한다. 즉 죄의 본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으로(롬 8:7),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 놓기 위하여 "주 하나님을 좇아 내도록" 만든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행위로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죄의 심각성으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거절당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거운 죄의 값을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므로 해결해 주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선교사 이야기

조나단과 로잘린드 고프드 부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동양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중 가장 뛰어난 선교사, 고프드! 그의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분이 된다. 첫 번째는 그의 선교 방침이다. 그의 선교 방침은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랐다. 그 당시 노련한 선교사들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 "불신자들 앞에서 처음 설교할 때부터 예수라는 말을 앞세우지 말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게". 그러나 그는 이 충고를 언제나 무시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반드시 전해야 할 것만을 전했다. 이러한 고프드의 선교 방침은 지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교 방법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선교사역 초기에 중국 하남 북부 지역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가 카톨릭의 공격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카톨릭은 장학금과 기숙사를 포함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여 중국인들의 마음을 샀다. 그러나 고프드는 결코 미끼를 써서 신자들을 모으지 않았으며, 오히려 물질을 욕심 내어 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역겨움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비록 고프드가 카톨릭에서 배우는 식의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거기에 호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시 고프드에게 돌아왔다.

그의 모든 선교의 원칙과 방법은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라는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했다. 그의 이런 선교 원칙은 다른 선교사들과 많은 마찰을 야기시켰지만 그는 75세로 죽는 그날까지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을 전했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였다.

(루스커의 '선교사 열전'에서)

주님의 계획

구 자 의 (고등부 교사)



대학교 3학년. 나는 대학부터 올라와서 이때까지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교회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리고 봉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고등부 반주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피아노를 전공하니 나에게에는 예배 반주가 가장 적합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쉽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생각이 참 짧았다. 이제껏 친구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봉사들은 사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등부 반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학부 봉사와 찬양대를 그만 두고 나니, 정말 오직 예배 뿐이라는 생각을 들었다.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예배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등부 반주자로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고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안에 가식된 나를 버리게하고 일대일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자리,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함을 알게 해준 자리이다.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볼 수도 있게 되었다. 참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하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싶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묵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이 지 영 (고3, 고등부 오케스트라)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역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들, 혹은 그것들의 어느 것에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들을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로써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전승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나는 고3이다. 2학년 때 함께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친구들과 이제는 고3이라고 거의 봉사를 안 한다. 시험이라고 예배만 마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대학 못 간다면 다들 쉬엄쉬엄 봉사하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솔직히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며, 5부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할 때면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에 경역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믿는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나는 쉽게 봉사를 그만둘 수 없다.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하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경역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기

5.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개인으로서 남들과 구별되어 선다는 사실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르지 않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기쁨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해 줍니다. 사람들도 예외 없이 험잡은 존재로 태어나 험잡은 존재로 죽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빛 앞에서 생전적 작은 차이들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이 진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결속하여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속감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분리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정말 슬프고 비통한 사건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죽음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시므로써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돌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통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이 땅에서도 형제애를 풍성히 누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형제와 자매를 만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바로 인식하게 되면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 믿는 자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애를 누구에게서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형제애가 느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역시도 죽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형제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권오성 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박 철 홍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예수의 자애로
가졌노라

머칠 전 건물 입구에서 발을 헛 딛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순간 이쁜 것보다 참피한 것이 더 곱았다. 일면 일어서니 발이 찢어진 장갑과 보이지 않을 즈음까지 걸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통풍이 심한 왼쪽 무릎을 보았다. 만사지는 뜻이 있었는지 제법 큰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약국을 찾아 나서면서 내 내 신경이 쓰인 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찢어진 비자였다.

초등학교 시절 무릎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을 정도로 자주 다쳤지만 그때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상처나 흉터가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상처나 흉터가 몸에서 부끄러운 대상이 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흉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때론 그 흉터를 '훈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입은 상처의 흉터인가'라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한다. 여기서 '흔적'이란 소유권을 표하는 낙인을 의미한다. 물론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인위적인 도장찍음과 같은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지는 않는다. 학자들은 '예수의 것'으로 소유권을 드러내는 이 '흔적'을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말한다는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입은 상처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상처를 지은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 상처들을 자신이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증거로 삼고 있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는다. 새로운 형태로 교회를 꾸미려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압박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다. 또한 이리나저리할게도 유한한 이 이유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 안 된다. 그 압박의 유일한 원인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 앞에 홀로 서보자. 대응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자신을 평가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로 인해 입은 상처나 남겨진 흔적들을 세상에 보이기 부끄러워 예수의 흔적 지우기 보일 것인가

구역장 영성훈련

돌아오라

4교구 (방준영 목사, 이옥주 전도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조건은 회개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 조건적으로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구역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이 질문에 타당한 대답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은 듯 보이나 떠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찾아보자. 우리의 상태가 가장 좋으며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로보암 시기는 가장 번성했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시기였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 우리는 첫 만남의 음성을 기억해야 한다. 첫 만남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조신자들의 어린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고, 돌아왔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로 부터 온다. 그저 입으로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죄용서는 그렇게 남용되어 매년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것은 죄를 완전히 소멸하여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며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골 29:11). 그 평안과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돌아가야 할 부분들을 찾았으면 속히 돌아가자.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이와

우리는 성경 속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고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필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총'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17번째 어머니 '이와'의 신앙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일동의 창조물, 이와. 그녀에게는 모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와에게 놀라운 창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열서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에게 놀라운 생명의 근원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선택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녀를 보며 느끼게 됩니다.

이와의 집은 아름다운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은 물론 모든 것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가 이와에게 왔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금령으로 주어진 선악과를 앞에 놓고 속이는 자가 그것을 먹으라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옳은 것보다는 그녀 자신에게 좋게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속이는 자로 하여금 욕심을 생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잘못된 생각에는 불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 자신과 자식에게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이와는 임신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사탕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달았습니다. 이와는 가정의 비극을 지켜보는 첫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거역한 그 길에서 아들의 비통함을 보고, 이제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권을 내어 맡깁니다. 그녀가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고 탄생시킨 생명의 결정체 '셋'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남편과 동침하는 용기를 얻어 아름다운 셋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이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완벽한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진 이와의 삶은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곤궁에서의 삶과 불순종의 삶은 통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의 삶을 간접하시고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와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녀의 회개를 통한 셋의 출산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첫 인간 이와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축약을 할 우리의 죄를 용서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슬픔에 잠긴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짐을 그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을 허락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 형 태' 성도를 소개합니다



아내와 아들 둘, 말 하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탁아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내(박옥순 집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며 세례를 받은 후에 말씀 공부하기 위해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의 장남이기에 제사가 가장 문제였으나 동생들을 다 모이게 한 후 올해부터 추도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매개도 제사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드림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할지 모르도록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일과 영생을 얻은 믿음이 새가족부 과정 중에서 성경 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기도 중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과정 중에서 성경 암송, 퀴즈대회 등에 참여하여 사랑상을 받았을 때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고 성경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명령에 잘 순종하기를 원하며 다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신측 통신원)

203장 나 행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전례

364년 동안 목사로서 성직을 이어온 가운데서 자란 스코틀랜드의 찬송가 작가인 호레 이시아스 보나 박사가 1861년에 작정한 찬송이다. 위대한 명성과 능력을 지닌 설교자로 스코틀랜드에서 잘 알려져 있던 보나 박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훌륭한 찬송을 작사하였다. 1862년 조지 윌리엄 마틴이 작곡한 찬송을 1874년 아더 시무어 설리번이 편곡 화성을 붙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1절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받고 이 육신 함치 예레도 죄 씻지 못하니 내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뵈 못하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침을 못 씻네
- 2절 주 예수 공로만 내 침을 씻기며 주 예수 출린 피로써 내 평화 얻게되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 3절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배려롭니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를 뵈 못하면 내 마음이 불어 버리네
- 4절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함이나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옵소서 나 다시 살겠네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부르게 되는데 셋째 문부터 점점 커져서 넷째 첫 마디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 후 점차 작아져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그 절정인 부분도 강하게 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나 은은한 분위기로 불려야 할 것이다. (찬양원리)

2교구 이봉희 성도(여56세) 당뇨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난 금요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시력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유용규 집사(남76세) 고관절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명원 성도(남27세) 아킬레스 건·발목 부위의 인대·이 끊어 지난 2일 수술을 하였고, 골절도 있어서 김스 중입니다.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되고 뼈도 잘 붙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이정수 성도(남40세) 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양실

감 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교사생활을 되돌아 보면 정말 갑사할 따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정말 아무 보잘 것 없고 미약한 저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요.

작년 말 저는 작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작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관계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봉사를 하고 있던 저에게 장로님께서 '학생 면담회 교사'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만 담담한 말았던 저는 덜컥 "면담회를 맡으면 더 신경 쓸 것도 없고, 주중에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방에서 겨우(?) 올라와 봉사는 나에게 왜 그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서울에 있으면 봉사하기가 편할 텐데, 지방에 있는 나로서는...' 하며 내심 속으로 현실을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할만 한 자를 쓰실 것이라는 작은 확신이 들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많은 부족한 면이 있으나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부끄러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섬김과 봉사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처음 원고를 청탁 받고서 '감사'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을 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약속된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저의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제 삶에서 진실한 감사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하루 하루의 일로라 지치고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내가 어떻게 감사의 글을 쓴단 말인가 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나하시더라도, 비록 내 형편이 이렇더라도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저는 그저 단순한 사실에

서부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흥해가 갈라지고 애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만사를 내려주셨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착박한 장아로 나가게 되고 다니엘의 세 천구처럼 풀무불의 뜨거운 속으로 떨어졌을 때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빌면 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사한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감사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 진 (중동3부 교사)



진리의 샘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전체를 단숨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서를 대조해서 읽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한 방법이지만, 우선 각 복음서별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끝까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록의 특성 때문입니다. '고대 전기 문학은, 어떤 지기 건너뛰며 읽기보다 전체를 통독하도록 기술되었다. 사복음서를 읽는 독자는 한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로 넘어가기에 앞서, 현재 읽는 복음서가 보여 주는 사상의 흐름을 따라 개별적으로 읽어야 한다'(C. 카너, '성경배경주석', p.45).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읽고 있는 복음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각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 목적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보이네요). 달리 말하자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실 때 명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읽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입체적인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각'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시각은 타운센드가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이라는 주제로 잘 묘사했습니다(J. Townsend, GOSPEL THEMES : Four Portraits of Christ's Life). 일반적으로든 글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기술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사복음서를 독학에 따라서 읽는다는 것, 또는 기록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교훈이 무엇이었는지에 편심을 두고 읽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더 밀접하게 접근하여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예수께서 사셨던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도 신적인 특성이 부여되어 있지만, 특히 복음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를 초월하여 전교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2천 년전의 고대사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혼은 언제나 현재로 돌아와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고대의 독자 위치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최초의 청중인 듯한 자세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의 세대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게도 적용되게끔 쓰여졌으므로, 독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C. 카너, p.46).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사도행전도 포함) 신약의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매순간 어떤 상황들이 제시되고, 현재와 특정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으로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서 독해를 다룬은 본들이라면 더욱 복음서의 내용이 피부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하 목사 (순천국교회)

믿음의 학교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러고하고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메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수 6:2-3).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맨 앞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흰 옷을 입은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양자나팔 소리를 내며 따랐고, 그들 뒤로는 연약체가 따랐으며,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줄을 이어 행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방법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 근거하지만 성화는 순종에 근거한다"(W.그래함 스크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지도 말입니다.

백성들은 옛새 동안 날마다 성읍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들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수 6:10). 이처럼 성 주위를 돌 동안 침묵하게 한 것은, 거룩한 나팔 소리를 주의 길에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끄러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의 절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앞서 가나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욥 33:33).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러고하고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히 11:30).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권함익 기자)

- [illegible]